

---

# 2024 3월 이스라엘 기도편지

---

20240323

요셉의 창고 기도편지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부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이 지금 이 땅에도 그리고 저희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만의 총체적인 반유대주의: 유대인 증오라는 부림의 패러다임>

하만은 모르드개에 대한 열렬한 적대감을 개인에 대한 증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한 유대인 개인의 신념과 관행에 관한 공격이 아닌 유대 민족을 향한 총체적인 증오입니다. 이것은 곧 유대민족이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증오이자 대적입니다. (하만의 영-아말렉의 영-에 대한 성경적 역사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전쟁 반발 직후 기도편지에서 나눈 적이 있어 오늘은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증오는 현대 역사에서 나치의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인종적 반유대주의로 발현되었습니다.

현대 역사에서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 같은 유대 민족에 대한 총체적인 증오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0월 7일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 이후로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은 샨이라고 불리는 그 날,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전화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

은 유대인을 학살했는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이나 국가 건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과의 평화를 원하는 평화운동가, 외국인 노동자, 기독교인, 베두인 가리지 않고 유대 국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벤구리온 대학에서 이스라엘학 공부를 할 2-3년전 당시 학계의 분위기는 더이상 반유대주의에 대한 연구와 학문을 심화시키고 싶어하지 않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학자들은 반유대주의라는 주제에 대해 더이상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대등한 관계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더이상 역사적 산물로 여겨지는 반유대주의의 이데올로기에 가두어 두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뒤로 하고 보다 긍정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향해 전진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10월 7일에 일어난 유대인 학살과 그 후 전세계적으로 불타오르는 반유대주의에 대해 이제 그들은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에서도 유대 회당에 나치의 심볼인 스와스티카가 낙서되고 반이스라엘 시위가 이어지며 대학가에서 유대인 학생들이 위협을 받고 소셜 미디어에 유대인을 향한 공격적인 메시지가 공공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에 대한 증오의 증가가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며 부림의 패러다임, 하만의 영의 역사는 계속 되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자국민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하마스나 이란 배후의 헤즈볼라, 후티, 등 또다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그룹을 소탕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한 반격에 대해 국제 사회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식민주의 국가, 힘없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학살한다는 전쟁 범죄의 프레임을 씌워 악마화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 석방과 하마스 소탕이라는 두 사안 사이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이스라엘 사회도 분열되어 정부에 대해 여러 시위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대인 증오라는 총체적인 반유대주의와 이스라엘 국가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유대인 에스더들이 사건의 심각성과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녀의 유대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고 유대 사회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삼촌인 모르드개가 유대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 법령에 대해 말하기 전까지 그것에 대해 알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모르드개가 그녀의 역할에 대해 언급할 때도 에스더는 자신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자신없어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들을 향한 증오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두려워 하거나 수동적으로 머무르기를 택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키파를 쓰고 다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를 떠올려 본다면 충분히 이해 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알리야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개인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며 잘 살아가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총체적인 유대인 증오라는 반유대주의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유대인 국가로 알리야 하거나, 알리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유대인으로 살아가기에 문제없는 (비록 사방을 둘러싼 적들이 있다 해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뛰어넘어 이뤄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하이라이트는 그녀가 유대인의 정체성, 부르심을 깨닫고 왕 앞에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동안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하고 그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과 그 증오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수동적인 왕비가 아닌 생명을 건 전사적 여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참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

지하고 그의 구원을 바라보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유대인들의 참 정체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번 부림절에 감사한 것은 부림절을 앞두고 유대 사회가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공적으로 민족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예슈아의 계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부림절 이야기는 하만의 죽음과 유대인들의 놀라운 승리에서 끝나지 않고 이 일련의 사건, 전쟁이 기억될 방식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의 모르드개는 증오의 역사에서 사회를 회복시키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에서 모르드개는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여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과 선물을 주고 받으며, 자선을 베풀 것을 가르칩니다. 일어났던 어둠의 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으면서, 극심한 증오로 인한 슬픔과 애도에서 자연스럽게 기쁨과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부림절이 시작된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년 거행되던 카니발 같이 변질된 소란한 부림절 행사는 자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유대주의와 지속되는 전쟁이라는 어둠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조용한 사랑의 표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더 바구니라고도 알려진 ‘미של로아크 마노트’라는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고 서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학살로 인한 사망자 가족,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 가정, 인질 가족들의 아픔과 애도, 슬픔, 분열로 물든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하나됨을 되찾아 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하만의 귀’라고도 불리는 삼각형 모양의 쿠키를 굽고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후원하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움추려드는 어둠이 짙어

지는 상황에서 이런 작은 사랑의 표현들은 하나님의 빛, 예수아의 사랑이 파고들 수 있는 작은 틈새들을 만들고 기쁜 소식에 열린 마음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십 사일과 십 오일을 지키라 이 달 이 날에 유다인이 대 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대로 또는 모르드개의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 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 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좇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 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폐하 지 않게 하였더라”

에스더 9:21-28 KRV

<이스라엘 소식 및 기도제목>

지금 부림절과 라마단 기간 중에도 이스라엘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경지역에서도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북부지역(메틀라, 키르앗쉬모나 등)을 향한 대전차 미사일·로켓 등 공격과 IDF의 레바논 남부지역을 향한 공습, 포격 등 보복 공격이 지속되면서 긴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의 살롬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요셉의 창고 소식 및 기도제목>

1. 저희는 3월 13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창고를 위한 새로운 장막터로 이사하여 지난 주까지 하우스 단장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아담하지만 구별된 예배 처소와 기도방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창고 미션 센터를 허락해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지난 약 1년 동안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동역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토라포션 (출애굽기 38-40)의 말씀이 성막을 만들고 정비하는 말씀이었는데 저희 가정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지만 주님의 말씀 스케줄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미쉬칸(성막)은 여호와와 영광스런 임재, 쉼이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와 중보기도, 구제와 긍휼 베품의 제사장적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거하시는 요셉의 창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헤세드(긍휼, 사랑, 은혜)로 퍼져나가는 사랑의 장막(러브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1번에 이어서, 이번에 마련된 장막의 아랫집(원래는 한 집이나 집주인이 둘로 나누어 세를 줌)까지 요셉의 창고가 확장되어 더욱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3. 최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음세대를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런지 모르지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세요.

4. 저희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이스라엘 군인들과 어려운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길 기도해주세요.

부족한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해 이 곳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